

일념 즉 오온이 공함을 보아 해탈을 성취한다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월암 스님(백송사 선원장)

‘백양사 아단법석’ 3일째인 11월 23일 오후, 월암 스님(함양 백송사 선원장)은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월암 스님은, 최근 간화선이 부처님 수행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초기불교 수행자들의 지적에 대해 “간화선이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과 상좌부의 아비담마,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증론과 동일한 지평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암 스님은 “대혜 선사가 주장하는 일대사인연이나 혜능 선사가 설한 근본종지와 일념(一念)수행 역시 부처님께서 설한 무상(無常), 고(苦), 공(空), 무아(無我)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의 교설이 초기불교로부터 중국 선종에 이르기까지 기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다만 초기불교는 생멸연기의 입장에서 부정적 언어(무상, 고, 무아, 부정)로 기술하고 있으며, 선종에서는 환멸연기적 입장에서 긍정적 언어(보리, 불성, 청정, 본래면목, 주인공)로 표현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연관시켜 간화선 수행의 방편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법문과 토론의 요지.

육대법의 내용은 다른 종도를 수행하는 견성과 전법의 논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삼과법문과 삼십육대법은 일념(一念)수행과 일념 해탈로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념을 수행하면 자신이 곧 부처이다. 깨닫지 못한 즉 부처가 중생이요, 일념을 깨달은 즉 중생이 부처이다.”(돈황본 단경)

혜능 선사가 천명한 일념수행이란 중생과 제불의 차이를 단지 일념의 미오(迷悟)에 있다고 보고, 미와 오의 차이는 다만 일념지간에 있으므로 일찰나에 전미개오(轉迷開悟)할 것을 권장한다. 이 말은 중생의 일념은 무명에 오염돼 분별망념으로 생멸윤회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지만, 분별망념에 휘말려들지 않고 망념이 본래 공함을 여실히 깨달으면 본래심이 회복돼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념, 즉 오온이 공함을 보아 해탈을 성취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혜 선사가 말한 보리열반, 진여불성이 번뇌망념 너머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듯이 혜능이 말한 자성 혹은 본성, 심성 또한 공, 무이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말하는 자성청정(自性淸淨), 본래면목, 주인공 평상심, 즉심시불(卽心是佛), 무위진인(無位眞人) 등의 연구는 실제적 진아(眞我) 아트만의 의미로 설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 무아, 중도를 나타내



월암 스님

근기와 기연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 번의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향방 스님 : 확률대오의 경우는 하나를 통하면 전체를 통하는 ‘일통 만통’이 돼야 한다. 일본의 선종은 ‘사다리 선’이라고 해서, 의리선 법세를 풍기는 게 사실이다. 하나의 화두를 타파해 넘어야 할 화두가 있다면 증오(證悟)가 아니다. 증오인 경우는 ‘일통 일체통’이 돼야 할 것이다.

토론자(우바세) :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설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월암 스님 : 고려시대의 선적을 보면 거의 보조 스님 일색이다. 경허, 만공, 응성, 환암 스님도 보조 스님의 견해를 따랐다. 다만, 서산 스님이 법통 문제에 있어서 연원을 태고보우 스님으로 이은 바 있지만, 성철 스님 때까지 보조 스님이 한국 선사상의 주류를 형성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철 스님이 보조 스님의 ‘돈오점수설’을 비판하고 ‘돈오돈수설’을 제기한 것은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성철 스님의 주장 역시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 스님이 돈오점수설을 말한 것은 독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규봉종필, 영명연수 선사 등의 전통적 입장을 따른 것이다. <아함경>에서는 ‘돈현관’, ‘점현관’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돈점이론은 불교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돈점이론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수기설법으로 봐야 한다.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법에는 돈점이 없으며, 중생의 근기에 예리함과 둔함이 있을 뿐이다’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비구) : 임제 스님을 황백 스님에게 인도해 깨닫게 한 목주 스님처럼 구점수자들이 역할이 필요한 시대다. 수좌와 조실스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살아있어도 간화선이 좀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한다.

월암 스님 : 눈밝은 종사가 부족해 거랑과 점검, 인가제도 사라진다면 시스템으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지적이 나고 견차가 생긴 분이 부족하다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도 간화선 수행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우바이) : 중생은 무명(無明)에 의해서 12연기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명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월암 스님 : 무명이 본래 없는데, 무명 이전 이후가 있었는가? 일체 유위법이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다. 망념이 본래 망념이 아니다(분별망념에 휘말려들지 않고 망념이 본래 공함을 여실히 깨달으면 본래심이 회복돼 부처를 이루게 된다) 굳이 질문에 대답하라 한다면 무명 이전이나 이후가 광명, 지혜, 부처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남방의 해탈열반과 견성성불은 같은 깨달음의 경지 지혜·자비 함께 수행하는 ‘복혜쌍수’ 가풍 진작시켜야

간화선을 확립한 대혜 선사는 “오음(五陰),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이십오유(二十五有), 무명업식(無明業識), 사량분별(思量分別) 하는 마음”, 즉 팔식(八識)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곳, 즉 무명으로 인한 번뇌 망념에 휘말리지 않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화두참구의 요체를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음, 육입, 십이처, 십팔계 등으로 대변되는 일체 번뇌망념(팔식 작용)을 놓아버린 그곳에서 화두 참구를 통해 번뇌가 바로 공성(空性)임을 요달해 번뇌가 그대로 보리인 진여불성의 중도를 깨닫게 하는 견성법(見性法)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종에서 주장하는 돈오자성청정(頓悟自性淸淨)이란 자기 성품이 무명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본래적 진실성(淸淨)을 단박에 깨닫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화선의 사상적 연원은 혜능 선사의 선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최후 유교(遺教)설법을 통해 선종의 근본종지를 잃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삼과법문(三科法門)’과 ‘삼십육대법(三十六對法)’을 설하고 있다. 혜능 선사가 설한 삼과법문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를 가리키며, 삼십

은 존재의 참모습을 선종용어로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혜능 선사는 정념(正念: Samma-sati)이란 “오직 보리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리열반은 본래 얻을 수 없고,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무념은 모두 일에 따른 방편에 의해 가짜로 그 이름을 붙인” 중도정관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관(止觀: 사마라-위빠사나)경수의 입장 또한 선종의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전통과 간화선에 있어서의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는 화두참구법과 동일 지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남방의 sati(혹은 위빠사나)수행을 통한 해탈열반과 화두 타파로 얻어지는 견성성불이 똑같이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임을 알 수 있다.

화두 참구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은 간절함(切)이다. 일대사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발심이 전제되었기에 간절함 마음으로 의정이 끊어지지 않는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틈이 없는 마음, 즉 무간단(無簡單)이 돼야 한다. 간단없는 의심을 이어가되 간절하고 철저하게 사무치는 의식이 일념만년(一念萬年)되게 해야 깨달음의 단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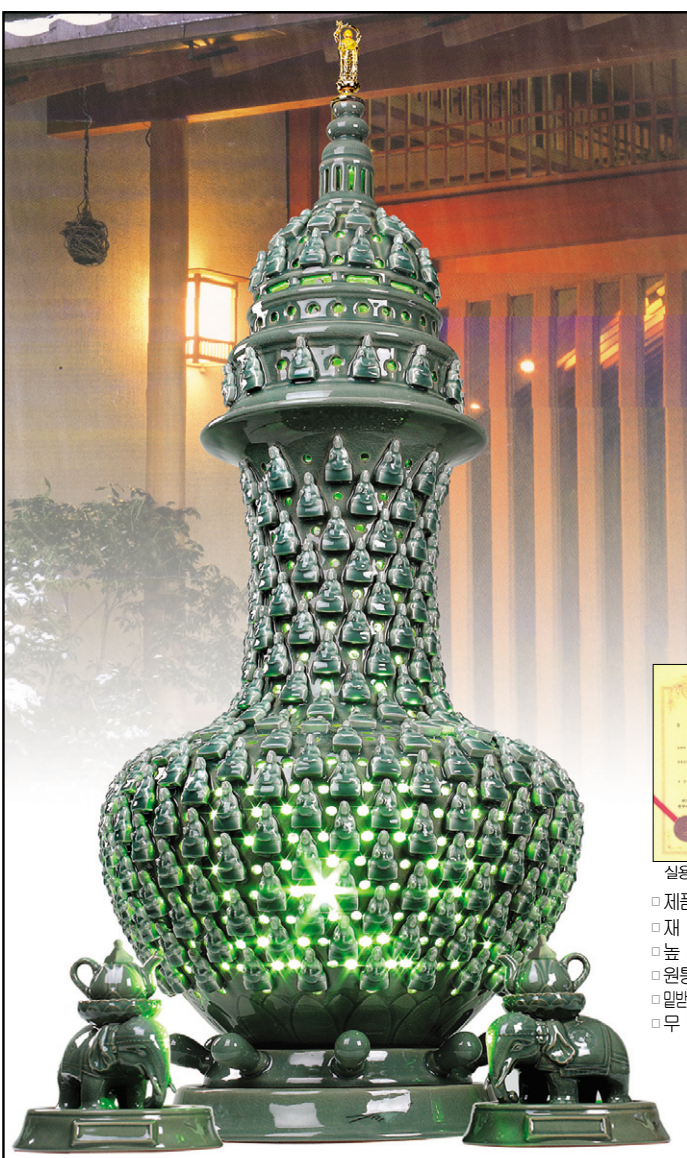
향상할 수 있다.

간화선 수행의 일반적인 방편인 발심-출가-정견(연기적 中道正觀 확립)-점문(參禪: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물음)-결택(決擇: 선지식이 수행자의 수행기연과 이력을 관촬해 화두를 제시함)-참구(參究)-탁마(琢磨)-행각(行腳: 동중공부인 만행)-삼매(화두가 끊어짐 없이 늘 한결같은 상태)-거량(擧量: 수행의 진척상태를 점검하는 선문답)-점검(선지식의 지시)-인개(선지식으로부터 깨달음을 인정받는 것)의 과정을 거친 선사는 최종적으로 교화에 나서게 된다. 수행자가 견성성불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것과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은 결코 두 가지 일이 아니다. 항상 화두를 참구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두 수레바퀴를 굴러 지혜와 자비가 함께 수행되는 비지쌍운(悲智雙運), 복혜쌍수(福慧雙修)의 가풍을 진작시켜야 한다. 수행 가운데서도 이러한진대 깨달음을 성취한 연후 육도중생을 널리 구제함은 대승보살의 비원일 것이다. <심우도>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난후 마지막으로 중생의 삶의 현장인 저자거리로 나아가(垂手入塵) 화광동진(和光同塵)할 것을 설하고 있다.

질의응답

토론자(거사) : 하나의 화두를 투과한 뒤에 계속 몇 개의 화두를 하나씩 타파해가는 것을 바른 화두공부로 볼 수 있는가?

월암 스님 :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이 여러번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간화선을 확립한 대혜 선사는 물론이요 보조 스님은 세 번의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하며, 일본의 백은 선사는 큰 깨달음을 8번, 작은 깨달음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한다. 육조 스님의 경우도 나무꾼 시절에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듣고 한번 깨닫고, 오조홍인 대사 아래에서 행자로 생활하면서 <금강경>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법문에서 활연대오 한다.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전불보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불교 엑스포 [해운대 백스코, 12월 3일 ~ 6일]에서
사찰경제 살리는 법륜대를 돌려보세요!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묶은 빛,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망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